

2023. 12. 6.(수) 10:00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에 대한 질문

지역소멸 · 학교소멸 완화 대안으로서
지역산업 특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주문



전수관 의원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전수관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2023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
해 새해 살림을 준비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소멸은, 현재 진행형이자 너무 가까이 와있는 미래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지역소멸과 학교소멸이 서로 맞물려 있어, 지역이 쇠
퇴하고 일자리가 감소하여 그로 인해 미래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면서 학교 학생수가 줄어 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전북지역 11개¹⁾ 초등학교에서는 입학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제도 2곳의 학교에서 신입
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고교까지 합하면 27곳에서 신입생이 ‘0
명’ 이었습니다.

입학생이 1명뿐인 학교도 무려 26곳²⁾에 달합니다. 김제는 4곳의 초

1) 김제 2, 군산 5, 진안 1, 무주 1, 임실 1, 고창 1

등학교에서 나홀로 입학식이 치러졌습니다.

한해가 멀다 하고 학교는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30년 동안 전북에서만 320개교³⁾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체 학교 765개중 무려 41.8%가 폐교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직접적 원인은 당연히 유소년인구(0~14세)와 학령인구⁴⁾ 감소에 있습니다. 장래 인구추계에서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학령인구는 ' 2017년 317,000명에서 20년 뒤인 ' 2037년엔 45.9% 감소한 171,000명 수준이 될 것입니다.

김제시 학령인구 역시 2017년 10,441명에서 2027년엔 7,359명, 2037년엔 5,470명으로 47.6%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15년 안에 초등학령은 40.0%, 중학학령은 45.8%, 고등학령은 58.2% 감소해서 지금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시군 장래인구추계, 2020]

한편, 학교는 단지 배움의 터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2) 군산 1, 익산 5, 정읍 3, 남원 1, 진안 2, 장수 1, 임실 1, 순창 1, 고창 4, 부안 3 / 전북교육청 자료

3) 초 300, 중 14, 고 5, 특수 1 / 종로학원, 2021년 3월 기준 폐교 초·중·고 현황

4) 학령인구 : 초등부터 대학까지 각급 학교의 교육연한에 따라 재학할 수 있는 인구로서, 6세 이상부터 만 21세 인구. 즉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는 18~21세에 해당.

미칩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 시설이자, 지역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가 있어서 마을엔 생기가 남아 있었고 자신의 모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어른들은 그 곳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줄기차게 지속된 출생율 저하, 학령인구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학교, 마을 그리고 지역 소멸의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 여건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쪽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생태계가 취약해지면서 교육환경과 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맹모삼천지교’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부모들은 마침내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인구정책의 아킬레스건인 ‘지역이탈’은 바로 학교소멸부터 뿌리가 흔들리고 고사(枯死)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 없는 학교’, ‘학교 없는 마을’ 그리고 ‘주민 없는 텅빈 도시’는 우리 시대, 우리 지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소멸을 완화할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줄어드는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교 육성은 하나의 유용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전통산업, 주력 특화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지역 학교에서 길러내고 산업현장과 직접 연결해서 교육, 실습, 취업, 정주까지 이어주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만 둘러봐도 전통주, 한지, 주얼리, 실버산업, 용접 등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 가능한 전공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육성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가치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직장과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타지로 떠나는 일반계고 아이들보다(50%대), 직업계고 졸업생의 동일권역 정착율이 69% 수준으로 더 높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또한 청년층 입직연령이 1살 낮아질 경우 초혼도 평균 3.3개월 빨라진다니, 특성화된 직업계고 육성은 그야말로 청년층의 지역 정주에 작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능연, 2023 / 국회예산처, 2018]

하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생태계 구축은 혼자만의 구상과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지자체간의 인재양성 정책은 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정부부처 합동으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골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에 지역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 35곳을 선정하여, 각 학교마다 20억원씩을 지원하는 등 집중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직업계고 100곳 육성 목표



2027년까지 35 곳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2027년까지 65 곳	마이스터고 추가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연계해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협약 체결시 교육부 재정 지원 운영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직업교육의 선도 모델) 육성 예정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나 지역 기반 산업 인재 육성: 실버 사업, 전통주·전통가옥 사업, 용접, 건축(타일·미장 등) 등		기존 마이스터고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육과정 고도화, 맞춤형 교육 강화 위한 재정 지원 확대	
		2022년 기준 54곳, 2027년까지 10곳 이상 추가 지정 목표	

연합뉴스

자료: 교육부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특화산업(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인재, 지역 인재를 길러내자는 산(産)-학(學)-정(政) 협력과 상생의 모델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큼니다. 위기학교와 지역특화산업의 결합은, 1+1=2가 아니라 3 또는 3+@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제시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김제시는 특장차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화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입주, 정착, 가동, 세제 등 다양한 지원, R&D와 실증단지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특장차를 ‘made in Gimje’ 로 만들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김제시가 집중육성하는 특장차산업과 연계된 자율고가 운영된다면, 교육과정의 실습과 현장형 체험, 취업 및 추후 숙련노동자로서 지역 창업까지도 가능할 것이며, 잘만 운영된다면 다른 전공분야의 추가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고, 타 지역 학생의 관심과 유입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숙련된 근로자가 전공과 경험을 살려 지역 창업으로 터잡을 때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과업을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구심점은 지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부가 산-학 협력의 기둥이자 다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김제시가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전략’, ‘학교와 함께하는 지역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학교소멸의 댐을 다시 쌓고 지역소멸로 타들어가는 도화선의 불을 끄는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출생율을 높이는 것은 어쩌면 신의 영역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전략 즉, 지역특성,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탄생시키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바로 내년 초부터 선정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협약형 고등학교 도입 로드맵(안)>

년도	'23.하	'24.상	'24.하	'25년~'27년	'27년~
구분	계획수립 현장 의견 수렴 계획 마련	학교 선정 및 운영 준비 협약고 모집·선정		운영 및 확산 협약고 운영 및 확산	내실화 협약고 평가 및 정신 현장안착

지금 바로 선정준비에 돌입해야 합니다. 김제의 아이들을 “트랜스포머 천국” 특장차 산업의 주인공으로 키워내는 일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과제인 것입니다.

결국, 학교소멸과 지역소멸 완화, 지역특화산업의 발전, 예측가능한 진로 제시와 인구 정주율 제고 등 모든 측면에서 협약형 고교 육성은 뚜렷한 ‘대안’ 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온갖 공을 들여 키우고 있는 지역 특화산업을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고 ‘김제의 것’으로 착근(着根)시키기 위한 풀뿌리 전략 차원에서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래톱처럼 소멸되어가는 위기의 도시 그 위태로운 강가에서, 멀기만 한 사회 저 너머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김제시가 작은 다리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지역산업 특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에 관한 시장님의 고견과 함께, 정부 사업 일정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 대응해주실 것에 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